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임 상 빈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인형을 통한 내적 자아 탐구와  
사회적 심리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박 수 민

인형을 통한 내적 자아 탐구와  
사회적 심리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임 상 빈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5월

성신 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박 수 민

# 인 준 서

박수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 개요

이 논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형을 주제로 한 작품을 중심으로 인형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의미와 사회적 의미, 다양한 심리적 영향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나는 인형을 예술작품으로 발현시킴으로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자아를 불러일으키며, 나아가 사회 속의 개인, 주체성과 사회성을 회복하는 데 힘을 주고자 한다.

최근 들어 나는 지난 인형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인형이 가진 영향력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 인형이 유년의 중요한 경험을 떠올려주는 매개체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 속에 존재하는 감정을 이입시킬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적 소중하게 여겼던 인형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작품을 통해 인형이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다시금 서로 간에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며, 나아가 사회적 심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작품의 주된 방법론은 흑연과 목탄 가루로 인형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실루엣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각각의 인형들이 가지고 있는 사연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나는 나의 대표적인 세 가지 시리즈인 ‘초상(肖像)’, ‘정상(情狀)’, ‘군상(群像)’ 속에 드러난 다양한 인형의 의미를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인 관점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인형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다시 고찰하고, 이 과정 속에서 이뤄지는 자아 탐구와 개인의 주체성의 확립, 더 나아가 사회성의 발달에 관해 깊이 있는 담론을 전개한다. 논문을 통해 인형과 이를 형상화 한 작품의 가치,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회를 이해하고, 발전시켜 스스로 더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작품이 인형과의 전인격적 관계를 이해하고 각자의 내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 수 있는 전초단계로서, 우리의 진솔한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3
1. 개인의 내적 자아탐구의 대상으로서의 인형 .....	5
2. 미술심리치료의 대상으로서의 인형 .....	7
3. 사회적 자화상으로서의 인형 .....	10
4. 네 가지 표현의 방법 드러내기, 겹치기, 늘어놓기, 조합하기 .....	12
5. 작품 분석	
1) ‘초상(肖像)’ 시리즈 .....	15
2) ‘정상(情狀)’ 시리즈 .....	18
3) ‘군상(群像)’ 시리즈 .....	23
III. 결론 .....	26
참고문헌	
ABSTRACT	

## 작 품 목 차

- [작품 1] <우리집 십이지신-子>, 30x30x7cm, graphite on paper with wooden box, 2018
- [도판 2] <우리집 십이지신 - 未>, 30x30x7cm, graphite on paper with wooden box, 2018
- [작품 3] < 십이지신 >, 90x120cm, graphite on paper with wooden box, 2018
- [작품 4] <목에 감기다>, 63.6x46.7cm, graphite & charcoal powder on paper, 2018
- [작품 5] <따뜻해서 다행이다>, 40.9x53cm, graphite & charcoal powder on panel, 2018
- [작품 6] <나를 들어서 여기에 놔줘야>, 72.7x72.7cm, graphite & charcoal powder on panel, 2018
- [작품 7] <이유 없는 모임>, 130.3x204cm, graphite on panel, 2018
- [작품 8] <어린 나의 길은 여행>, 97x324.4cm, graphite & charcoal powder on panel, 2019

## I. 서론

어릴 적 우연히 시작된 인형과의 만남은 단순한 사물의 마주침이 아니었다. 나는 성장하면서 점차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외로움을 느꼈다. 누구나 그렇듯 외로움의 시간을 홀로 보내는 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어린 나는 외로움이 느껴질 때마다 인형에게 무한한 애정을 쏟고자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첫 번째로 애착 인형을 상실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주변 사람에게 빌려준 인형이 집 밖으로 내다 버려지게 된 것이었다. 그때,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당시 나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사건에 대해 잊고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인형을 상실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다. 첫 번째 분실된 인형을 대신해 그 빈자리를 채우던 인형이 사라진 것이다. 인형이 사라진 뒤 드는 감정은 허탈함이었다. 분명 이것은 단순히 물건에 대한 그리움이 아닌 그 안에 담겨있는 나의 삶과 감정을 상실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을 것이다. 나는 이 사건을 계기로 내 주위에 있는 인형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인형이라는 존재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과 가치를 가지는 존재였는가를 연구해보고자 했다.

논문에서 나는 인형의 의미와 역할을 작품을 통해 분석한다. 본론에서는 인형에 대한 경험이 작품으로까지 연결된 계기를 설명하고, 인형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존재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1장에서 인형에게 부여된 자아와 주체성에 대해 분석하고, 나의 인형 작품과 연관 지어 이야기한다. 2장에서는 개인적, 심리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인형에 대해 언급한다. 3장에서는 인형의 사회적 자화상으로서의 의의를 드러낸다. 4장에서는 위 내용들을 네 가지 방법론으로 해석하고 작품에서 주로 사용되

는 재료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다. 5장에서는 작품을 시리즈 별로 묶어 인형의 기억 이미지에 대한 서술 방법과 구체적인 의도를 언급한다. 결론에서는 본 논문을 통해 인형에 대한 개인적인 주장을 밝히고, 이의 학문적 성과와 사회적 파장, 앞으로 이어질 다양한 연구 방법을 제안한다.

## II. 본 론

유년시절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나는 인형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그리고 수많은 인형들 중 부드러운 촉감을 가진 봉제완구는 나에게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왔다. 단순한 물건의 의미를 넘어서 따스한 감정까지 전해주는 인형이 나에게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투영시킬 수 있는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사회 속에서는 어린 시절의 나와 같이, 강제적 홀로서기에 동참된 아이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의지할 곳도 없는 채 혼자서 또는 형제들과, 낯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 나의 경험에 빗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정 속에서 알게 모르게 마음속 한 곳에서 고질적인 외로움, 그리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된다.

결국 나는 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이 아닌 인형이라는 새로운 애착 대상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주위를 둘러보니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형을 애착의 대상으로 생각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요즘 아동용품점에서는 애착과 인형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생긴 ‘애착 인형’을 팔기도 한다. 이렇듯 실생활에서도 지금 사회에서는 ‘애착 인형’이 어린아이에게 꽤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많고 많은 사물들 중 왜 인형을 택하게 됐을까? 이에 대해 나는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인형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인형은 인간 또는 동물의 모습을 모사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지칭한다. 과거에 신앙의 대상으로 제작된 것과는 다르게 오늘날에는 어디를 가나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용도에 따라 현대의 인형들은 실제 개체보다 대부분 귀엽고 친숙한 외형으로 제작되어 관상품 또는 장난감 등으로 다양하게 사

용되고 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이 인형들을 하나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중 봉제로 만들어진 인형은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으로 전해져 감성을 자극하며, 살결에서 느낄 수 있는 촉각의 감각을 통해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를 자극하기도 한다.

심리학자 해리 할로우(Harry Harlow, 1905-1981)의 실험을 보면 인간과 가장 비슷한 영장류인 원숭이가 모유가 나오는 기계보다 부드러운 촉감을 가진 인형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sup>1)</sup> 이는 생존의 영향을 주는 대상 보다 자신에게 시각적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감각 대상에게 본능적으로 애착을 더 형성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처럼 인형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능적인 심리를 자극하는 대상으로 우리 삶에 일부분으로 위치해 있다.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맞벌이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오늘날, 어쩌면 앞으로 지금보다 더 아이들은 자신들이 기댈 만한 애착의 존재가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는 애착이라는 심리적 상태의 바탕으로 존재하는 인형을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대변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이 어쩌면 우리의 현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질적인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실마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더 나은 삶을 위해 인형에 대해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

1) 해리 할로우의 원숭이 연구: 히말라야 원숭이를 실험 대상으로 한 대리모 실험. 시간에 맞춰 우유를 주는 철사 기계와 형겅으로 만들어진 인형 모형을 두 개의 대리모로 하여 어떤 물체와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지 실험했다.  
위키백과-해리 할로우, [https://en.wikipedia.org/wiki/Harry\\_Harlow](https://en.wikipedia.org/wiki/Harry_Harlow) (2019.05.10.)

## 1. 개인의 내적 자아탐구의 대상으로서의 인형

오늘날에는 소외된 유년시절을 보내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다. 바쁜 사회 속에서 의지할 곳 없이 소외된 사람들은 대부분 불안함과 외로움의 감정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 나 또한 그들처럼 소외된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외로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인격이 부여된 대상을 갈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나는 인형이라는 사물에 눈길이 가기 시작했다. 마치 생명체와 비슷한 이목구비를 가진 인형들은 시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나 나에게 친근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인형에게 자연스럽게 인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여러 솔직한 감정들을 공유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나는 주위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인형에게 의식을 불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소유한 인형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각 인형마다의 인격을 부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인형의 존재를 단순히 감정을 해소해주는 대상으로서뿐만 아니라 자아를 투영한 의미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나는 이 인형이 주는 의미에 대해 더 연구해 볼 가치를 느꼈다.

프랑스의 정신의학자 자크 라캉(Jacques Lacan, 1901-1981)의 상상계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인간은 유년기 시절에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울 자아를 경험하게 됨으로서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한다. 이때 나타나는 거울은 실질적인 거울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어떤 대상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주체를 확립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 안의 타인을 자신을 비추주는 대상을 통해 인식하면서 주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sup>2)</sup>

---

2) 손 호머, 「라캉 읽기」, 김서영 역, 은행나무, 2006, p.39-64.

이러한 라캉의 주장에 인형을 대입시켜 생각해본다면, 인격이 부여된 인형은 개인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로서 자신 안에 존재하는 타자를 발견하게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처음 타자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형에게 자아를 투영한 의식을 부여하는데 이는 거울처럼 자신을 복제하여 만들어 낸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을 비추는 거울에 해당하는 인형은 자신 안의 타자를 내포하고 있는 대상으로서 우리에게 ‘주체’를 인식시킨다. 결국 우리는 인형을 통해 자신 안의 또 다른 면면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인형이라는 존재를 거울 자아로만 한정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형은 오랜 시간 사람들과 함께함으로써 개인의 삶에 중요한 기록을 담을 수 있는 매개체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에는 인형들과 지금까지 동고동락을 하며 인생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런데 나를 포함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인형에 얽힌 중요한 감정들과 일들을 잊어 간다. 그리고 아주 가끔 우연한 기회를 통해 인형을 물리적 또는 정서적으로 마주하며 과거의 기억을 연상하게 되기도 한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인형과 함께 한 모든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릴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아련하게 떠오르는 기억으로 전달되는 감정이 우리의 삶에 있어 핵심이었던 장면을 요약해 나타내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인형을 개인의 삶에 대한 주요한 장면을 편집하여 담아내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작품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매개의 장을 경험하게 한다. 12개의 서로 다른 인형으로 구성된 ‘초상’시리즈는 각각의 인형들의 초상화를 담아낸 것이다. 나는 ‘초상’을 기존의 미술처럼 사람에 한정하고자 하지 않고, 인형이라는 사물을 담아냄으로써 인격이 부여된 인형을 강조함과 동시에 인형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가치를 승격시키고자 했다. 왜냐하면 인형이라는

사물의 존재가 이제껏 무생물로 취급되어 왔지만 나의 작품 속에서는 개인으로부터 부여된 의식이 있는 존재, 또 그럼으로써 한 사람의 기억과 잊고 있던 모습을 기억해주는 의미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인형은 그 자체로도 존재의 가치를 가진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나는 이 인형의 '초상'을 가져와 매개의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라캉의 상징계를 통해 말하자면, 인간은 상상계를 벗어나 상징계에 진입하게 되면 거울로 비춰보는 자신 안의 타자가 아닌 자신과 다른 존재로서의 타인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나와 타인의 생각의 간극을 인식하면서 주체로서의 나를 확립하게 되는 과정인 것이다.<sup>3)</sup> 이처럼 사람들은 이 매개의 방식을 통해 과거의 자신과 비교하며 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기도 한다. 따라서 나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형을 통한 과거 자아에 대한 인식은 지금 존재하는 자신과 충돌하며 그 사이 간극을 만들어 낼 것이다. 결국, 인형과 함께 연상되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비교함으로써 새로운 주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의 작품을 통해 사람들은 매개의 장을 경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자신의 주체성에 대한 발전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2. 미술심리치료의 대상으로서의 인형

나의 작품에서 표현된 인형은 미술심리 치료의 대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미술치료는 심리 치료의 하나로 미술로 개인의 감정과 내면세계를 나타냄으로써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치료법이다.<sup>4)</sup> 보통은 미술 심리 치료라 할 때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언어, 미술

---

3) 앞의 책 p. 65-95.

활동 등을 통해 심리상태를 분석하는 과정을 떠올린다. 하지만, 나는 인형이라는 대상을 통해 이뤄지는 미술심리 치료를 언급하고자 한다. 내가 말한 심리치료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호작용으로 이뤄지는 단일적인 치료가 아닌 내담자 스스로가 분석하고 치료하는 복합적인 단계 구조의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나는 이 단계 구조를 밝히기 위해 여러 인형들의 이야기가 담긴 ‘정상’ 시리즈를 예로 들 것이다.

나의 작품에서 일어나는 심리치료의 첫 번째 단계는 작품의 주된 줄거리를 만들면서 시작된다. 나는 여러 인형들을 가지고 놀이(play)를 하며 각각의 인형들마다의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놀이를 통해 만들어진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재 구현하며 나의 무의식적 감정을 투사한다. 나는 이 방식을 통해 나의 내적 갈등을 스스로 해결해보고자 한다.

작품의 제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놀이의 방식은 두 가지 심리치료가 섞여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아동을 대상으로 적용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하고 이를 치료하는 것을 의미하는 ‘놀이 치료’<sup>5)</sup>, 또 하나는 인형들을 가지고 배열하는 방식에서 반영되는 인간의 심리적 기제를 읽어내는 ‘인형 치료’<sup>6)</sup>이다. 그러나 나는 이 두 방식과는 다르게 아동을 대상으로 대상을 한정 짓거나, 치료의 목적으로서 제한된 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인형의 존재가 아동에게 국한될 의무가 없으며 실제 나의 인형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에 부여하였던 의식을 바탕으로 더 깊게 자아를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형들을 활용해 만들어진 화면 구성과 이야기의 분석을 통해 스스로를 파악하고 내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 있어 도

---

4) 네이버 지식백과-미술 치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7815&cid=51007&categoryId=51007>  
(2019.05.10.)

5) 네이버 지식백과-놀이 치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18662&cid=41991&categoryId=41991>  
(2019.05.10.)

6) 최광현·선우현, 「인형 치료」, 학지사, 2013, p.36-66

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나는 작품에서 나타나는 형태와 색 등의 무의식적 감각들을 스스로 분석하여 내면의 정신분석적 치료<sup>7)</sup>의 경험을 한다. 예를 들어 나는 작품에서 주로 흑연과 목탄 등 검은 특성을 가진 재료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뿌리고 문지르는 행동의 반복을 통해 나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내면의 상태를 표현한다. 이를 심리학적으로 해석해보면 내가 검은색을 통해 불안, 우울, 무의식의 상태 등을 표현함과 동시에 혼재된 내면의 상태를 표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sup>8)</sup> 결국, 나는 이 무의식적 행동들을 통해 내적 심리를 표출함으로서의 감정적 해소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 심리치료는 관람자들의 주체적으로 경험을 통해 이뤄진다. 관람자는 나의 작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난 인형의 존재에 자신의 경험을 대입하며 스스로의 심리적 분석과 회복을 이뤄내는 자가적 미술치료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기존의 미술 심리치료와는 다르게 어떠한 타인의 개입 없이 주어진 이미지에 대한 스스로의 해석은 내면의 심리에 대해 보다 깊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외부적 대화의 방식과는 달리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적 대화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뤄내는 분석과 치료를 통해 내재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솔직한 감정을 기반으로 개인의 성장과 가능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나는 미술이라는 매체를 이용해 인형에 대한 심리적 분석과 치료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방식은 개인의 자아탐구영역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이에게도 확장함으로써 의의가 있다. 그리고 전시라는 방식을

---

7) 정신분석적 미술치료: 미술활동으로 표현되는 무의식적 내용에 대해 탐색하고 치료하는 방법. 네이버 지식백과-정신분석적 미술치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77692&cid=62841&categoryId=62841>  
(2019.05.12.)

8) 이윤경, 「표현주의 미술의 색채심리와 심리 치료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 39-44

통해 어느 평범한 미술치료와 같은 일대 일의 상담이 아닌 일대 다의 구조를 가지며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 경험을 제공한다. 따라서 나는 사람들이 나의 작품을 마주함을 통해 자신의 심연에 존재하는 내면세계를 인식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3. 사회적 자화상으로서 인형

인형은 개인의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시켜 생각해볼 수 있다. 나는 인형과 놀이하는 행위를 하나의 ‘사회적 자화상’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보고자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조지 하버트 미드(George Havert Mead, 1863-1931)는, 인간의 행위를 사회적 행동주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본래 행동주의란 걸으로 드러난 행동에 초점을 둔 사고방식인데, 이에 미드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정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라 하면서 사회적 행동주의에 대해 정의 내렸다.<sup>9)</sup> 그에 개념에 따르면 우리의 사회적인 행동은 개인의 주관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에 인형놀이를 대입해서 생각해본다면 인형놀이는 개인의 주관을 통해 이뤄지는 행위로서 서로의 관계를 설정하며 작은 사회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 사회는 전부 개인이 관장하는 형태로 결국, 우리는 인형의 무리를 하나의 사회적 자화상으로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작품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사회적 자화상은 ‘군상’이라는 작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군상’은 말 그대로 인간의 집단을 의미하는데, 나의 작품에서는 인간이 주관하는 인형의 집단을 가리킨다. 이전의 미술에서 등장하는 ‘군상’은 사람의 무리를 묘사함으로써 한 시대에서 있는 사건 또는 시

---

9) 조지 하버트 미드, 「정신·자아·사회」, 나은영 역, 한길사, 2011, p.9~14

대상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 시대 무덤에 그려진 그림인 고분 벽화나 조선시대의 풍속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중의 모습을 나타냈었다.<sup>10)</sup> 하지만 나는 인형이 개인의 주관으로 관장된 형태로, 사람들 각자의 의미로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물이기 때문에, 인간 그대로의 ‘군상’과 인형의 모습에 빚댄 ‘군상’ 사이에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작품에서 군상을 인형 무리에 빚대어 나타내는 것은 기존의 미술에서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회상에서 벗어나 사회의 자화상을 나타내는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의 관점으로 인형의 인생을 해석했을 때, 인형의 삶은 사람의 인식이 부여되는 순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인식으로 구성된 그들을 하나의 인공적인 사회의 모델로 여기고, 그들의 활용한 다양한 놀이를 통해 겪지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사회를 실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보통의 아이들의 경우를 살펴봤을 때, 그들은 놀이의 과정에서 인형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부여한다. 가령 인형에서 엄마, 아빠, 형제 등 가족의 역할을 분담한다고 했을 때, 놀이의 매 순간마다 다른 시나리오를 구성하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이 이야기는 과거에 대한 재현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새로운 구상으로 스토리가 진행된다. 따라서 나는 사람들에게 작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형 놀이를 경험하게 함으로서, 우리 동시대를 보여주는 축소판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리고 동시에 익숙한 환경을 작품으로 생경하게 전달함으로서 새로운 사회를 경험하게 해줄 주고자 한다. 요약하자면 우리의 인형놀이는 사회를 미리 경험하는 수단으로 사회성의 발달과도 연결지어 생각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작품에 접목시킴으로써 우리 현 사회에 대한 사회적, 예술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인격적 모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10) 송순천, 「韓國畫의 群像 構圖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p16-27.

#### 4. 네 가지 표현의 방법

나는 인형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작품을 전개한다. 그리고 기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무채색을 활용한다.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축적됨과 동시에 구체적인 모습이 사라져간다. 따라서 과거 장면에 대한 색과 형태가 흐릿해지거나 잊어버리는 것에 주목해 나타내고자 했다. 작품에서 나타나는 무채색은 주로 인형에 대한 기억을 나타내는 주된 방법이다. 그리고 검은색의 중첩과 흰 잔상을 만들어 냄으로써, 인형에 대한 기억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자 했다. 나는 이 장면 속 무채색을 구현하기 위해 흑연 가루와 목탄가루 같은 건성 재료를 선택하였다. 건성 재료는 물감의 덧칠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그 위에 올라갈 때 밑의 가루와 섞이면서 색을 점차 쌓아간다. 나는 기억의 축적과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성 재료의 활용을, 아래 네 가지 표현법을 통해 더 효과적인 재현을 이뤄내고자 한다.

첫 번째 방법론은 ‘드러내기( disclose)’이다. 기억 속에 존재하는 대상은 구체적이거나 뚜렷하지 않고 대략적인 모습만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나는 작품에서 드러내기의 방법을 사용해 기억 속 어렴풋이 떠오르는 인형을 형상화하려고 했다. 특히, ‘정상’과 ‘군상’시리즈에서는 드러내기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드러내기의 방법은 판화의 스텐실 기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보이지만 기존의 구멍을 도려낸 부분을 채우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나는 모양을 도려낸 종이를 화면에 올린 뒤 그 위에 검은 가루를 뿌리고 그다음 종이를 제거함으로써 남겨져있는 대상을 표현한다. 이는 기억의 잔상으로서 존재하는 인형을 채워진 형상이 아닌 비어있는 대상으로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결국, 작품에서 밝게 드러내진 부분은 흑연과 목탄 가루들이 쌓일수록 점점 대비되며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공허한 대상을 표현할 수 있는 방

식이 된다. 사람들은 나의 작품에서 과거의 인형에 대한 회상을 통해 추억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추억에 대한 성찰이 내면의 자아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방법론은 ‘겹치기(overlap)’이다. 나의 작품에서 활용되는 겹치기의 방식은 작품에 심화된 감정을 나타내기 좋은 방법이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한 오버랩(Overlap)은 나의 작품 ‘정상’시리즈에서도 같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단어는 영화 용어로 뒤 장면이 흐려지면서 다음 장면이 나타나는 기법을 말하는데<sup>11)</sup> 마치 내 작품에서 검은 가루들이 위로 쌓여가며 뒷모습을 점차 가려가는 모습과 흡사하다. 하지만 나의 작품의 결과물로 봤을 때 뒷모습을 완벽히 가리는 형태와 같은 자리에 중복되면서 오히려 이전의 상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는 점은 차이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나는 이 방식을 통해 변화하는 상이 기억의 재현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감정들에 대한 중첩된 형태까지 나타내고자 했다. 또 ‘초상’시리즈에서는 물리적 오버랩의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앞의 판과 뒤의 판을 따로 제작하여 뒤에 묘사된 그림이 겹쳐 보임으로써 인식의 풍경 속에서 오버랩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오버랩의 방식을 통해 이뤄지는 인식에 따른 해석은 서로 다른 감정적인 측면을 포괄하여 해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새로운 형상을 표현함으로써 기억이 감정이라는 터널을 통과하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세 번째 방법론은 ‘늘어놓기(spread out)’이다. 나의 작품은 일종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따라서 ‘늘어놓기’방식을 내 작품에서 담고 있는 이야기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다. ‘정상’시리즈에서는 정렬되지 않은 기억 속

---

11) 오버랩(Overlap): 영화 용어으로써는 앞의 장면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데 겹쳐서 다음 장면을 서서히 나오게 하여 점차 완전히 다음 장면이 되게 하는 기법을 말한다. 촬영할 때에 필름을 뒤로 돌려 감아서 만들기도 하나 오늘날에는 편집 단계의 처리로써 하는 것이 보통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오버랩.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28148&cid=40942&categoryId=33091>  
(2019.05.10.)

대상을 각자의 흐름을 가진 이야기로 표현했다. 무질서하게 떠오르는 기억들을 작위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기억에 대한 사실적인 재현의 방법이라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형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일률적으로 배열된 양식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어쩌면 이 무질서함이 내용을 완벽하게 전할 수 없게 되는 요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의 기억이라는 것을 하나의 시나리오로 완벽하게 해석하기 힘들 것이다. 늘어놓기의 방식으로 나타낸 흐름을 통해 관람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해석했을 때 더 좋은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방법론은 ‘조합하기(assemble)’이다. 작품에서 놀이로도 표현되는 조합하기 방식은 ‘군상’시리즈에서 활용된다. 내 작품에서 조합하기는 인형을 모아 하나의 집단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나의 작품에서 만들어진 인형 ‘군상’은 사회적 결합체를 대변한다.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인형들은 사회 속 개인으로 존재하며 그들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군중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작위적인 결합체이지만 이걸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인형 ‘군상’을 바라볼 때는 개인이 만들어낸 상호작용, 그리고 그것을 통해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사회를 중점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나는 이 모든 방법론을 통해 인형을 개인의 기억 매개체로 또는 심리적 대상으로, 그리고 자아에서부터 사회를 만들어내는 과정까지를 나의 작품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는 단순히 이론으로서 앞선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미술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더 가치 있게 전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작품을 통해 발견하는 자아, 사회를 관조하고 미술이라는 방식을 통해 예술적 가치로써 대상을 해석할 수 있기 바란다.

## 5. 작품 분석

### 1) '초상(肖像)' 시리즈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나의 '초상' 시리즈는 십이지신으로 선정된 열두 인형들의 이목구비를 부분적으로 묘사한 작업이다. 나는 작품 속에서 인형을 수호신의 대상으로 빗댄으로써 외로운 현대 인간상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자 했다. 많은 현대인들은 바쁜 사회 속에서 소외되며 의지할 대상을 잃어버린다. 나 또한 마찬가지로 의지할 대상을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인형이라는 대상이 나의 눈에 띄었고 차츰 인형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작품 1] <우리집 십이지신-子>, 30x30x7cm, graphite on paper with wooden box, 2018

내가 인형에게 부여한 의미는 바로 수호신이였다. 수호신이란 민족이나 국가 또는 개인 등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신을 이야기한다.<sup>12)</sup> 홀로 남겨진 나에게 유일한 존재인 인형에게 나는 지킴이의 역할을 부여해 외로움과 불안한 감정을 떨쳐나고자 한 것이다. 십이지신에 해당하는 동물 또한 신이라는 무형의 존재에 대해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빗댄 대상으로, 인형과 같은 의미적 맥락을 가진다. 따라서 나는 작품에서 인형들을 십이지신 수호신의 모습으로 형상화하여 외로운 현대 인간상을 보여주고 그들의 위로가 되고자 한다.



[작품 2] <우리집 십이지신 - 未>, 30x30x7cm, graphite on paper with wooden box, 2018

12) 네이버 국어사전-수호신,  
<https://ko.dict.naver.com/#/entry/koko/a2d68265cbfa445bbadeedbb37f2abaf>  
(2019.05.12.)

[작품 2]는 '초상' 시리즈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십이지신 중 양에 해당하는 인형을 묘사한 것이다. 이 시리즈의 특징은 부드럽게 묘사된 이목구비 위에 잘린 인형의 형태가 겹치기의 방식으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이다. 나는 뒤 장면을 '오버랩' 하는 방식과 특정적 이목구비만 묘사하는 방식을 통해 대상에 대한 인식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게 하고자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 속에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 떠올릴 때 어떤 완전한 형태를 떠올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무작위로 설정된 이목구비와 잘린 형상의 맞물림은 인형의 모습을 각자의 기억에 따라 유추할 수 있게 힌트를 제공한다. 따라서 나는 작품을 통해 인형을 기억 매개의 역할로서 보여주고, 사람들은 자신의 소중한 기억을 불러낼 수 있는 수 있는 경험을 하길 바란다.



[작품 3] < 십이지신 >, 90x120cm, graphite on paper with wooden box, 2018

[작품 3]은 십이지신을 모두 모은 모습으로 각각의 인형들은 캐릭터성을 보여준다. 나는 이 캐릭터성을 이용해 작품에 대한 공감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 미디어 매체로 자주 접할 수 있는 캐릭터는 다른 인형들 보다 쉽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왜냐하면 자주 접한 이미지는 익숙한 대상으로 인식돼 보는 이로 하여금 조금 더 친근함을 느끼게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캐릭터라는 것은 종종 미술작품들에서 무차별적으로 복제된 상품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의 주제로 자주 등장한다. 그렇지만 나는 여러 상품으로 복제된 이 인형들에게 느끼는 애착의 정서야말로 극한의 외로운 감정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한 대상이 아닐까 생각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대상에게 각자의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의 작품 속에서 캐릭터의 특징을 띠고 있는 인형은 친숙함을 통해 우리에게 더 넓은 공감을 유도해줄 것이다. 나는 결론적으로 ‘초상’시리즈를 통해 외로운 인간상과 또 그에 대한 공감, 그리고 이를 통해 이뤄지는 과거에 대한 회상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 이는 기억의 매개체로 활용되는 인형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또한 더 나아가 자아탐구를 통한 주체의 발전까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 2) ‘정상(情狀)’ 시리즈

‘정상’은 있는 그대로의 형편이나 사연을 이야기한다.<sup>13)</sup> 나의 작품에서 ‘정상’은 사전 그대로의 의미와 비슷하게 인형들이 각자 지니고 있는 사연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사연을 통해 심리적 문제에 대한 해소의 장을 만들고자 했다. 나의 작품에서 말하는 사연은 인간이 경험하는 사연과는 분명

---

13) 네이버 국어사전-정상.

<https://ko.dict.naver.com/#/entry/koko/9e30dc55c74947138192ac2796956750>  
(2019.05.12.)

다른 부분이 있다. 바로 인간이 스스로 직접 경험한 이야기와 인간의 의식이 부여된 무생물이 경험하는 이야기 사기에는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간은 자신에 경험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인형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인형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간의 주체적인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는 분명 인형을 사람들의 내적 심리를 내포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므로 다양한 심리적 치료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결국 나는 이 시리즈를 통해 인형에게 투영된 인간의 희로애락을 이야기의 구조로 나타냄으로써 스스로의 심리적 해소의 장을 만들어 보고자 했다. 이는 사람들에게 자가격 심리치료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작품 4] <목에 감기다>, 63.6x46.7cm, graphite & charcoal powder on paper, 2018

[작품 4]는 뱀 인형의 일생을 나타낸 작업이다. 나는 이리저리 거처를 옮

겨 다닌 뱀의 정상을 하나의 화면에 담아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뱀은 세 번의 주인을 맞이하는 삶을 살고 있다. 여러 손을 거쳐 간 여과로 모습은 닳고 닳아 불균형적인 몸매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한 인형의 기구한 삶을 나타낸 장면 같지만 여기저기 방황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다르지 않다. 우리 또한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상처받고 닳아가는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형의 삶에 대해 공감과 동시에 연민의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감정을 단순히 공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개선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작품 5] <따뜻해서 다행이다>, 40.9x53cm, graphite, charcoal powder on panel, 2018

[작품 5]는 [작품 4]와는 다르게 비교적 긍정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다. 용인형을 주제로 한 이 작품은 포근한 장소에 보관되어있는 어떤 대상을 표현

하였다. 이 대상은 사람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격차를 보여주기도 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따뜻함이라는 것은 인형에게 큰 행운일 것이다. 왜냐하면 뒤이어 나오는 다행이라는 표현을 통해 다른 대상, 환경과는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랑받지 못하는 인형들은 차갑고 어두운 공간에 보관된다. 물론 너무 소중한 물건이라 깊은 곳에 보관했다 가끔 꺼내보기도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해당 존재를 확인하면서 안도감을 느끼곤 한다. 따라서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다양한 격차, 그리고 그를 통한 심리적 상태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고자 했다.



[작품 6] <나를 들어서 여기에 났잖아>, 72.7x72.7cm, graphite & charcoal powder on panel, 2018

[작품 6]은 비슷한 자리에서 계속 살아가는 호랑이의 인생을 그린 작품이다. 옛 설화부터 인간을 대변하는 대상과 기운생동의 상징으로 불리는 호랑

이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자리에만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돌아 가는 반복된 형상으로서 보여준다. 이는 마치 라캉의 상징계에서 타인의 의무를 부여받게 된 사람으로, 진정한 주체에 대해 의식하지 못한 모습으로 보인다. 결국 이 작품은 그 기대감을 벗어나지 못한 채 고정된 삶을 사는 현대의 인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작품에서 점점 중심에서 벗어나는 구도로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를 준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만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대변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정상’ 시리즈에서는 인간의 삶을 인형들의 사연에 빗대어 표현하고, 이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이 시리즈에서 등장하는 인형들은 각기 다른 크기와 모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인간들의 삶과 함께 영위하는 인형들 또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게 되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무작위의 크기와 자세들을 혼합하여 장면을 연출해 다양한 시간과 이야기의 측면을 화면에 담아내고자 했다.

작품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겹치기’와 ‘늘어놓기’의 방법론은 화면에서 비 정렬의 구성을 만들어 낸다. 이를 통해 전달되는 장면은 다양한 인식의 장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무작위로 배열된 인형들의 모습은 서로 쌓이면서 되면서 형태를 지워가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우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형상을 찾아내거나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작품을 통해 살펴본 인형은 인간의 삶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대상으로서 존재한다. 결국, 나의 작품이 사람들 스스로의 해석을 통해 자가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상담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 행위는 결국 자기성장의 도움이 될 것이다.

### 3) '군상(群像)' 시리즈



[작품 7] <이유 없는 모임>, 130.3x204cm, graphite on panel, 2018

[작품 7]은 '군상' 시리즈 중 십이지신 동물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나타내고자 한 작품이다. 나는 흑연만을 사용해 인형들의 실루엣을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모습을 무작위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거친 드로잉을 '조합하기'의 방법을 통해 그들을 감싸고 있는 아우라를 만들어 내고자 했다. 이는 서로 간의 관계가 만들어 내는 복잡 미묘한 감정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사회의 관계를 구성하는 방법과 매우 흡사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나 또한 인형놀이를 할 때 서로에게 역할을 분담하였다. 누구는 엄마, 아빠로 등장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동생, 친구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 행위야말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관장하는 작은 사회의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지금의 사회와 비교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놀이의 방식을 통해 한 개인의 손으로 형성된 사회

상은 모두를 아우르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작품을 통해 나의 구성원들을 보여주고 각자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통해 모든 이의 사회적 결합체를 대변해 보여주고자 한다. 결국 나는 이 작품을 통해 개인이 만들어 내는 사회상 그리고 그 속에서 빛대 볼 수 있는 지금의 사회적 자화상을 비교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였다.



[작품 8] <어린 나의 길은 여행>, 97x324.4cm, graphite & charcoal powder on panel, 2019

[작품 8]은 여러 등장인물이 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롱 테이크(Long Take) 형식을 사용했다. 롱 테이크 기법은 주로 영화에서 쓰이는 방식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쇼트 없이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sup>14)</sup> 나는 작품 속에서 롱테이크의 방식을 통해 끝없이 이어지는 지속적인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보고자 했다. 나의 작품에서는 제목 그대로 어린 내가 기억 속의 여행을 하는 과정과 서로와 관계를 형성하는 장면을 하나의 쇼트로 보여준다. 내 작업에서는 한 화면에서 장면이 바뀌어 가는 영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여러 장면이 한 화면에 나열되는 조합하기의 방법을 사용했다. 여기에 나는

14) 롱 테이크(Long take): 영화의 쇼트 구성 방법 중 하나. 1~2분 이상의 쇼트가 편집 없이 길게 진행되는 것.  
네이버 지식백과- 롱 테이크,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36807&cid=40942&categoryId=33091>  
(2019.05.10.)

작품 속 흑연 가루의 서로 엉키며 쌓여가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나의 기억을 여행하는 장면을 구성하였다. 이 장면은 우리의 관계 형성의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나는 우리가 사회에서 관계를 맺는 과정, 그리고 그것의 지속적인 모습을 작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내고자 했다. 이에 대한 감상은 인간관계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과 고찰 그를 통한 사회적 관계의 개선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일 것이다.

### Ⅲ. 결 론

이 논문은 2017년부터 제작되어 2019년 석사 청구전과 개인전에 전시된 작품들을 분석한 글로써 인형과 나의 태도를 밝히는 글이다. 논문을 통해 나는 인형에서 느끼는 감정을 구체화했으며, 이를 작품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이유를 정리하였다.

나는 유년 시절부터 함께 지내왔던 인형에 대해 최근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나에게 인형이라는 존재가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형이 나의 외로움을 상징해주는 대상이기도 하다. 애착이라는 정서를 서로 감정을 교류 할 수 있는 생물에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생물인 인형에게 대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경험을 지나치지 않고 인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작품을 통해 풀어내고자 했다. 나의 작품에서 여러 방법으로 변주된 인형의 모습들은 인형이라는 존재에 대해 자아탐구로서의 새로운 해석의 맥락을 부여한다.

나는 인형들에 이입된 자아를 탐구하기 위해 인형들의 사연에 집중한다. 피동적인 사물인 인형이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즉, 사물을 조종하는 능동적인 주체의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에서 발현되지 못한 주체성을 인형에게 투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작품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합하여 한 화면을 구성해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본인만의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이 방식은 인형에 비친 자아를 돌아보고 성장시킴으로서 개인의 주체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논문은 인형이 담아내고 있는 개인의 기억에 대한 부분부터 미술심리 치료, 사회적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까지 다양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중

인형을 통한 놀이의 방식을 심리적인 맥락에서의 해석뿐 만 아니라 미술치료의 대상으로도 살펴보는 관점으로 예술적, 심리적으로 인형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기존의 미술에서 나타난 인형의 이미지는 종종 상업적인 측면이 강조된 역설적인 존재로 그려지곤 한다. 하지만 나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인형은 명확한 이목구비를 가진 캐릭터의 특성을 벗어나 실루엣만으로 등장함으로써 대상이 가진 감상적 특성을 더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또 인형을 전인격적 대상으로 분류하여 사람들의 공감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나는 인형의 남겨진 실루엣을 활용하여 개인의 기억과 확장된 사회의 모습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인격적 사회상을 제시할 것이며, 예술로서의 사회적 목소리를 지속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언급한 인형에 대한 의의는 앞으로 우리의 자아와 심리에 대해 분석하고자 할 때 용이하게 쓰일 것이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소외되는 사람은 점차 다양한 연령과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인형을 택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 감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인형에게 우리는 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나는 인형에서 해석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메시지를 계속해서 읽어내려가고자 한다. 이는 인형에 비치는 인간의 솔직한 감정과 또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만드는 사회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인형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인형은 오늘날의 일상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인식할 수 있는 첫 번째 타자일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채 당연하게 지나간다. 따라서 나의 작품을 통해 나타나는 인형들에 대한 생경한 장면이 오늘날에 존재하는 인형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예술로서 표현되는 대상에 대한 폭넓은 공감은 이 사회의 심리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네이버 지식백과-놀이치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18662&cid=41991&categoryId=41991> (2019.05.10.)

네이버 지식백과-롱 테이크,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36807&cid=40942&categoryId=33091> (2019.05.10.)

네이버 지식백과-미술 치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7815&cid=51007&categoryId=51007> (2019.05.10.)

네이버 국어사전-수호신,

<https://ko.dict.naver.com/#/entry/koko/a2d68265cbfa445bbadeedbb37f2abaf> (2019.05.12.)

네이버 지식백과-오버랩,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28148&cid=40942&categoryId=33091> (2019.05.10.)

네이버 국어사전-정상,

<https://ko.dict.naver.com/#/entry/koko/9e30dc55c74947138192ac2796956750> (2019.05.12.)

네이버 지식백과-정신분석적 미술치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77692&cid=62841&categoryId=62841> (2019.05.12.)

송순천, 「韓國畫의 群像 構圖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손 호머, 「라캉 읽기」, 김서영 역, 은행나무, 2006  
이윤경, 「표현주의 미술의 색채심리와 심리 치료적 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위키백과-해리 할로우,  
[https://en.wikipedia.org/wiki/Harry\\_Harlow](https://en.wikipedia.org/wiki/Harry_Harlow) (2019.05.10.)  
조지 하버트 미드, 「정신·자아·사회」, 나은영 역, 한길사, 2011  
최광현·선우현, 「인형치료」, 학지사, 2013

# ABSTRACT

## A Study on Exploring Inner Self through Doll and Social Psychological Expression - Focusing on Researcher's work-

Park Su Min

Dept. of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paper studies the personal meanings and social significance of toys—especially dolls and stuffed animals—as well as the relationships of psychological influences with and among them with focus on the works that I created about them from 2017 to 2019. I intend to inspire people's inner selves, which have been buried under deep layers of their memories, by featuring in my artworks toys that I played with as a child, to the extent that they may also have as children. I also intend to help them to develop their individuality, identity, and sociality.

I recently recalled the toys that I played with as a child and began to take more notice of their influence. I realized that they not only act as

media that recover important childhood experiences that would otherwise become forgotten but are also objects toward which we direct feelings that we may experience in a wide range of relationships. Looking around, I have discovered that many of us have forgotten the toys that we valued as children. Before, while, and after creating my paintings, I try to listen carefully to the stories that each toy has to tell. Then, once again, I try to form meaningful relationships with them. I also hope that through my artworks, the audience will have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ir social psychology in a fresh light. The primary method of creating the paintings has been the expression of the silhouettes of toys with graphite and charcoal powder, and in doing so, I tried to make heard the stories that each toy has to tell.

In this paper, I analyze the meanings of the toys that are featured in my three most representative series—Chosang (肖像, Portraits), Jeongsang (情狀, Circumstances), and Gunsang (群像, Groups) from personal,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points of view. By doing so, I will re-contemplate the values and meanings of the toys and unfold an in-depth discourse on the soul searching and reinforcement of individuality and sociality that the re-contemplation may involve. I hope that this paper will help you better understand the toys that you played with as a child, my works created with mine, and society and pursue greater dreams as more mature individuals connected to our innermost selves. I also hope that my works will lead to clues for the audience to gain a holistic understanding about their childhood toys and start intimate and honest conversations with them.